

어린이 통학차량 갑힘사고 예방

도교육청, 차량운전자·동승보호자 외 학교장·담임교사 등 교직원 공조활동 강화 공사립유치원·초등학교에 공문 요청... 사고 예방책 마련 등 7가지 수칙 지켜야

전북도교육청이 등·하교시간에 통학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차량안에 갇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고자 차량운전자, 동승보호자 이외에도 학교장(유치원장), 담임교사 등 교직원들의 공조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25일자로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보내는 [간담] 어린이 통학차량 갑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직원 공조활동 강화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무더위가 시작되는 5월 이후에는 폭염으로 인한 차량내 질식사사고가 우려된다고 강조

하면서, '갑힘사고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교육, ▲차량 일일 점검표 안전운행 체크리스트 매일 확인 및 결재, ▲등·하교시 통학차량내 잔존인원이 있는지 차량중사자 이외에 책임있는 교원 등이 중복체크, ▲아동에 대한 신속한 출결관리 및 조속한 사후조치, ▲아이가 통학차량에 갇혔을 때를 대비한 유치원 원아의 차량경적 SOS 훈련, ▲통학차량 선팅(틴팅) 농도 체크, ▲부모, 운전자,

교원이 공조·협력해 사고 예방책 마련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군산에서 유치원 아동이 1시간 50분 동안 전세버스 차량에 갇혔다가 구조된 사고와 관련, 일련의 조치결과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 전세버스 회사 측에 차량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안전지도사) 교체를 요구했으며, 지금은 당해 유치원 교원들이 직접 등하교 차량에 탑승하여 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북교육청은 정책공보

담당관(학생안전관리담당), 학교교육과(유치원담당), 행정과(통학버스담당) 등 3개 부서의 장학관·사무관급 현지 합동 조사반 활동에 이어 25일 오전에는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장급 현장 방문 점검 및 향후 대책 협의활동을 펼쳤다. 전북교육청은 그간의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급변 사고가 실무자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7가지 안전수칙'을 추가마련해서 통보했고, 학교(유치원) 경영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달 30일(수), 군산지역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학교장(유치원장)을 시작으로 6월까지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어린이 갑힘 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 순회 연수를 펼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전주시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5일 학업을 중단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아티스트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내 꿈은 메이크업 전문가'

전주시,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멘토링·직업 프로그램 진행 예인전문학교 전북캠퍼스 방문

전주시가 메이크업아티스트를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시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5일 학업을 중단한 전주시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직업인 멘토링&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스타트 워 멘토(Start with Mentor)'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한 전문 직업인들과의 멘토링 시간과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체험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며 직업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드론조종사 체험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프로그램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49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20개의 직업군중 가장 많은 득표수로 뽑힌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직업군으로 선정하고 진행돼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다.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박효원 예인직업전문학교 전북캠퍼스 원장으로부터 메이크업아티스트 직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뷰티분야 직업기술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드론 조종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군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눈높이에 맞는 보다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꿈드림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과일의 여왕 체리' 오늘부터 수확체험

전주체리영농조합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이 FTA(자유무역협정) 대응사업으로 보급하고 있는 체리(cherry)가 수확을 앞두고 있다. 전주체리영농조합(대표 박종신)은 28일부터 본격적인 체리 수확체험 및 직거래 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리 수확체험과 직거래 판매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체리를 소비자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안전한 국내산 체리로 대체하면서, 수확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유통보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고품질 체리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체리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며, 골다공증과 당뇨예방,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어 작지만 풍부한 영양을 갖고 있는 과일이다. 전주체리영농조합은 전주시 덕진구 고래로 8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체험방식은 30분간 체험객이 체리 포장용 농비닐을 시식하고 300g 담아가는 방법으로, 체험비용은 초등생 이상 2만원, 유치원생 1만원이다. 따놓은 상품 구입 시 700g에 2만원, 300g에 1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날은 체험이 진행되지 않는다. 체리수확 체험 프로그램 참여와 구입을 원하는 시민들은 전주체리영농조합(대표 박종신=010-3913-7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다문화가정 한국요리 체험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5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 전통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롯데백화점 전주점 제공)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계 섰거라'

전주시보건소-전주지검,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단속

전주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불법재배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28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전주시방검 협동으로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

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등을 밀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전주시보건소는 전주지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2015년 3건(23주), 2016년 9건(235주), 2017년 13건(203주)의 마약류 불법재

배를 적발했다. 장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단속대상인 마약양귀비는 꽃대가 솟을 때가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글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원예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전주 만들기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에서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열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북대 대학로상점가 편이 25일 전북대 대학로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도 상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가요제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

가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그맨 황기순 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초청가수 진성·현진우·삼순이·현상·한여름의 축하공연과 예선을 거쳐 선발된 시민들의 노래 자리가 펼쳐졌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